

모두가 한마음 협력 밝은 미래 ‘협심도진’ 최선

〈協心圖進〉

2030년까지 중장기적 목표 설정... 지역소멸 위기 대응

2025년은 민선 8기 4년차로 반점점을 돌아 종착점으로 가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이며 민선 8기의 성과를 결실로 맺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부안군정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부안군은 ‘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해 목표를 이루고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협심도진(協心圖進)’을 신년 화두로 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2025년에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및 푸드엔레포츠타운이 완공되고 크루즈 기항 등 부안군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세바퀴 경제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첨단방위산업 실증, 국제케이팝학교 유치 등 새만금 사업을 희망의 역사를 써나가는 기획의 관문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되는 생활인구 확보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000만명의 생활인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부안군은 각 정책의 비전을 2025년에 그치지 않고 2030년까지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부안군의 2030 비전을 살펴봤다.



▲세바퀴 경제 고도화, 지속 가능 지역 경쟁력 확보

부안군은 부안형 수소산업 육성,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 농업, 관광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세바퀴 경제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쟁력 확보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다.

먼저 부안형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선도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완공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 최초로 하루 1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해 수소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단지에 공급하게 된다.

부안군은 이를 바탕으로 청정수소 실증단지 부지 조성 및 소형모빌리티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①제11회 중국 국제 크루즈 회담 기조연설 ②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착공식 ③수소충전소 ④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조감도 ⑤세계지질공원 ⑥야생발치키기, 비호텔설치사업 ⑦중국 크루즈 선사 대표단과 업무협약 ⑧한평생 갯벌 프로젝트 ⑨노인일자리 영농사업단 방문

또 2028년 부안수소도시 완공과 2030년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단지 구축, 그린수소 생산과 연계한 RE100 산단 조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예정이다.

부안형 푸드플랜 사업은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소비가 집적화된 먹거리 핵심 인프라인 푸드엔레포츠타운이 오는 6월 완공된다.

부안군은 푸드엔레포츠타운 활성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부안형 푸드플랜 생산농가 1,000농가, 소비회원 1만5,000명, 연매출액 100억원 등을 달성해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가공분야 일자리 창출 등 체계적인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조성은 글로벌 휴양레크리에이션 관광지 조성 및 글로벌 관광 활성화, 부안관광 브랜드 확립 등 3대 추진방향에 맞춰 6대 전략과 28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글로벌 휴양관광 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관광객 1,500만명을 달성할 방침이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등 ‘세바퀴 경제’ 정책 탄력받아

RE100 산단 · 방위산업 실증 등 새만금을 미래 기회로 활용

생활인구 확보로 지방소멸 극복 신속 재정집행 민생경제 회복



▲RE100 산단 · 국제케이팝학교, 더 특별한 부안 도약 발판 ‘새만금’

부안군은 새만금을 부안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회이자 혁신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구상 중이다.

부안군은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에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전국 최초 RE100 산단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이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남북3축도로 시점 변경과 기력선착장 배후부지 조성 및 연결도로 신설 등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겨 나갈 방침이다.

새만금의 관문인 초입지를 첨단방위산업 실증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고 새만금 3권역에 국제케이팝학교를 유치해 첨단산업과 K-문화의 메카로 육성할 예정이다.

호남 서해안 철도망 구축 역시 군산~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무안~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와 부안~진주~김천선 동서철도망 구축을 통해 십자형 철도망의 중심지 부안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올해는 선제적으로 부안군 자체 철도 연결지점 용역을 추진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특히 부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본격 시행에 맞춰 신악관광 진흥지구(운호리 산림관광 개발사업)와 크루즈 산업 활성화 지구, 투자진흥지구(방위 · 항공우주 · 관광개발) 지정 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방소멸 극복 해답 ‘생활인구’ 확보 최선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제도를 도입하고 2025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할 계획을 밝히면서 생활인구 확보가 지방소멸 극복의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안군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생활인구 기본조례 제정과 부안사랑인 홈페이지 구축, 특색있는 지역자원과 연계해 2025년에는 월평균 40만명 유입을 목표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안군 생활인구 연령별 비율을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연령층이 40~60대 중장년층으로 부안군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매력적인 도시라는 의미다.

부안군은 자녀 양육과 함께 소비 주체의 핵심인 중장년층이 재방문할 수 있는 요인들을 더욱 강화하면서 20~30대 청년층도 찾아올 수 있는 체류인구 다각화 방안을 수립해 2030년까지 연평균 2000만명의 생활인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갯벌복원, 생태관광 등 ESG 일자리를 확대하고 부안형 탄소배출권 모델 개발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 생활인구를 넘어 다양한 연령층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부안군은 2024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도내 1위와 청년 고용률 도내 1위 등 다양한 성과를 내면서 생활인구 및 청년인구 확보를 통한 지방소멸 극복에 최선을 다했다.

/부안=김석진 기자